

조선후기 효제문자도와 지방적 조형특성 연구

-효제문자도의 그래픽 콘텐츠를 중심으로-

A study on Hyojemunja-do and regional plastic characters of the late Chosun

-centered on the graphic contents of Hyojemunja-do-

주저자 : 이명구 (Lee, Myung Goo)

동아방송대학 미디어디자인계열 교수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방법과 범위

2. 조선의 문자문화

3. 조선후기의 사회

4. 효제문자도의 형성과 발전

- 4-1. 효제문자도의 정형 성립과 내용
- 4-2. 효제문자도의 변천

5. 지역에 따른 표현양식의 특징

- 5-1. 정형의 경기도 효제문자도
- 5-2. 강원도 효제문자도
 - 5-2-1. 관동지역
 - 5-2-2. 관서지역
- 5-3. 제주도 효제문자도
- 5-4. 남도 효제문자도

6. 결론

참고문헌

(要約)

18세기 이후 조선사회에 폭발적으로 성행한 수(壽, longevity), 복(福, good fortune), 강(康, health), 령(寧, well-being) 자 등의 길상문자도나 대국민 교화를 목적으로 하여 효(孝, filial piety), 제(悌, fraternal devotion), 충(忠, loyalty), 신(信, trust, fidelity), 예(禮, propriety, courtesy), 의(義, commitment), 염(廉, frugal honesty, integrity), 치(恥, knowing shame, humility) 여덟 문자를 파노라마로 꾸민 효제문자도는 동양의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서화일치(書畫一致)나 서화동근(書畫同根)이고, 서양의 기준으로는 문자를 일러스트레이션화 또는 타이그래픽화한 디자인의 또 다른 세계를 의미한다. 이들은 표현 방식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조선뿐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에서 대단히 유행한 것이다. 조선후기에 형성된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 H-yojemunja-do)는 중국 양식에서 발전된 것이기는 하나 중국의 유교 윤리관을 보급하기 위해 교육적 요소를 첨가한 연속화 형식의 연화(年畵, Chinese Nianhua)나 실용성에 목적을 두었던 민간화(民間畵, Folk Painting)와도 구분되는 조선만의 독특한 도상(圖像, Iconography)과 양식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에 들면서 조선의 독창적인 조형관으로 재구성된 효제문자도는 다양한 계층의 화공들에 의해서 경기도, 강원도 관동과 관서 지역, 제주도, 남도지역 등에서 그 지역의 고유한 지방색을 지니고 특색 있는 양식으로 발전한다.

(Abstract)

After 18th century of Chosun Dynasty, Gilsangmunja-do such as longevity, good fortune, health, well-being which was explosively prevalent and Hyojemunja-do which was panoramically decorated with eight characters of filial piety, fraternal devotion, loyalty, trust, courtesy, commitment, integrity and humility for enlightenment of the public under the name of political ideology are consistency or same origin in traditional concept of Orient. Therefore, in view of Western standard, they are showing an illustration and a photograph of characters in design.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way of expressions. They were considerably popular not only in Chosun Dynasty but in China, Japan and Vietnam where belong to the cultural territory of chinese characters. Though, Hyojemunja-do which was built-up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and developed from chinese mode is a very peculiar iconography and mode of Chosun Dynasty. Hyojemunja-do is also classified from Chinese Nianhua designed for supply of Confucianism ethics or Folk Painting designed for practical use in chinese cultural territory. In the late period of 19th century, Hyojemunja-do which was re-built with creative modeling has been developed in peculiar mode in the province of Kyunggi, Kangwon(Kwan dong region), Kwanso region, Jeju island and Namdo region by the diversified level of painters.

(Keyword)

Hyojemunja-do, Munja-do, Min-wha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조선민화(朝鮮民畫)의 한 갈래로 일컬어지고 있는 효제문자도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다. 그는 1959년 8월 민예(民藝) 제 80호에 '불가사의한 조선의 민화'를 소개하면서 "...동양의 어디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민화가 매우 풍부하고 또 미개적인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의 하나에 '조선의 민화'가 있다. 이것이 정당하게 개발되고 소개된다면 천하의 주목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 유감스럽게도 조선 사람 중에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없고 따라서 문헌도 없으며, 정리된 한 권의 책조차 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실정이다. 더더구나 수집가는 전무하다고 생각한다"¹⁾고 당시 조선민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커다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를 전후로 비로소 조선민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다. 조자용(趙子庸: 1932-2000) 선생을 기점으로 1971년 김호연(金鎬然), 1977년 이우환(李禹煥), 1991년 김철순(金哲淳), 그리고 외국인으로는 1983년 로버트 모스(Robert Moes)로 이어진다.

특히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효제문자도와 관련해서는 조자용, 이우환, 야나기 무네요시는 도안화나 문자도로 규정하고 고유한 하나의 장르로 특징짓고 있는 반면, 김호연은 도교적 측면의 길상문자도는 장식화, 효제문자도는 윤리화로 간주하고 있으며, 모스는 평민화에 포함시키고 있다.²⁾

따라서 이 연구는 무엇보다 그동안 미비했던 조선민화의 지방적 조형특성을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왜곡은 물론 우리의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역사왜곡이 없는 움직임이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조차 효제문자도가 일본의 회문자(繪文字)나 문자회(文字繪)로 인식되고, 대만과 중국에서 발간된 각종 문자도 관련 서적들에 한국의 문자도가 일본의 것으로 잘못 표기되어있는 사실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정체성 있는 문화의 특성이 상품성을 갖춘 콘텐츠로 중요시 되는 최근 시점에서 우리나라 디자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세계 디자인과 경쟁할 수 있는 근거와 원동력을 만드는데 있다.

1-2. 연구방법과 범위

그동안 우리나라 사학계(史學界)에서는 개인이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를 경멸해왔다. 그 까닭은 연구 활동 자체가 수집 자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고, 연구에 사심이 개입될 수 있다는 어느 일본 사학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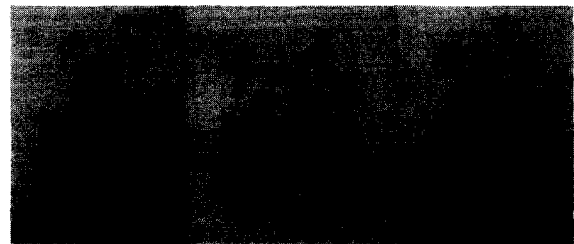
주장을 우리나라 사학계가 여과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효제문자도의 지방적 조형특성을 얻어낸 것이다. 참고로 삼은 자료들은 개인 소장품을 비롯, 프랑스, 영국, 일본 등지의 해외 소장품과 박물관 도록, 문헌, 논문, 향토사 등에서 망라한 것이다.

2. 조선의 문자문화

15세기까지 중국의 한자문화권에 속했던 조선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창제된 이후 비로소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불교나 유교 경전, 농업 등에 관한 다양한 서적을 한글로 편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다루는 19세기말까지도 한자문화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조선시대에는 한자를 사용한 각종 문화적 장치들이 생활 곳곳에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사 때 제단에 세우는 신위(神位)를 비롯해 연화(年畵), 세화(歲畵), 문배(門排), 춘첩자(春帖子), 춘련(春聯), 춘축(春祝)이 있고, 문력(文力)으로 재앙을 물리치려 했던 王.水.龍.虎 등의 벽사문자(辟邪文字), 또 현대 그래픽디자인에서도 놀랄 만큼 다양한 응용력을 보이고 있는 전서체(篆書體)의 백수백복도(白壽百福圖).불사백수부(不死百壽符).불사백복부(不死百福符)와 같은 주술적인 글자부적(文字符籙)³⁾ 그리고 민화, 의복, 건축물, 가구, 침구, 그림, 병풍, 부적, 식기나 각종 생활용품, 음식물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곳에 壽.福.康.寧.富.貴.多男 등과 같은 길상문자(吉祥文字)가 사용되고 있었다.

문자의 주술적인 힘을 신앙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배경에는 동북아시아의 모든 민족에게 강력한 종교로 이해되는 무교(巫敎, Shamanism)⁴⁾에서 설파하고 있는 '액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준다'는 제액초복(除厄招福) 사상을 들 수 있다.



[그림-1] 신선길상문자도 지본채색 36×63cm 개인소장

특히 18세기를 전후하여 조선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사건들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유교사상보다 옛부터 의지해오던 무교의 민간신앙관과 도교(道敎, Taoism)의 믿음이 팽배해지면서 다양한 양식의 길상문자도 [그림-1]가 더욱 성행하게 된다.

3) 金玟其, 韓國의 符作, 보림사, 28, 1987

4) 朴容淑, 圖像으로서의 무속화와 그 繪畵性, "한국巫神圖", 悅話堂, 39, 1989

1) 柳宗悅, 朝鮮의 民畫, 民藝, 日本民藝協會, 1959

2) 金哲淳, 韓國民畫論考, 藝耕産業社, 136-150, 1991

3. 조선 후기의 사회

1392년 성립된 조선왕조는 중국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가(儒家)를 전면에 내세워 정치와 경제, 사회, 사상 등 전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와 개혁을 가져왔다. 지배계층은 물론 일반 백성에게도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1432), 소학(小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474) 등의 윤리서를 보급하여 유교 예절을 익히고 그에 맞는 새로운 가족관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7년간의 임진왜란(1592-1598),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1637)으로 이어지는 긴 전쟁과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조선 후기(17세기 말 이후)는 사회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첫째로 산업과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일반 백성들도 부를 쌓으면서 집단적인 신분상승으로 조선의 신분계급이 동요되기 시작한다.

둘째로 시조, 한글소설, 한문소설, 판소리, 탈놀이, 민요, 인형극, 산대놀이 등 새로운 민중문화가 등장하면서 급속히 발전한다.

셋째로 예술품 시장이 형성, 발전하여 김광수(金光遂, 1696-?), 이하곤(李夏坤, 1677-1724)과 같은 수집가들의 출현과 함께 경화세족(京華世族)들의 고동서화(古董書畫)의 소장⁵⁾이 일반 서민들에게로 점차 퍼져나갔다. 한산거사의 한양가(漢陽歌, 1844), 19세기 후반 주한 프랑스공사관 통역관으로 근무하던 쿠랑(Courant, Maurice 1865-1935?)의 한국서지(韓國書誌, Bibliographie Correnne, 1891), 조선문화사서설(朝鮮文化史序說)에는 한성 광통교(廣通橋)의 서화상점을 묘사⁶⁾하고 있기도 하다.

넷째로 그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화서의 화원 출신뿐 아니라 최북(崔北, 최칠칠 1712-1761?)과 같은 전업작가와 승려, 무당, 일반 서민 등 다양한 계층의 화장이 대거 등장한다. 당시의 상황은, '조선 전국에서 밀려드는 요청으로 주문 받은 그림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간혹 아들에게 대신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다.'⁸⁾는 정선(1676-1759)과 '그림을 청하는 사람이 날로 많아져서 비단이 무더기로 쌓이고 재촉하는 사람이 문에 가득하여 미처 잠자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⁹⁾는 김홍도(1745-1814)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학자 이규경(李圭景, 1788-?)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¹⁰⁾, 경기지방 성조가의 황제풀이¹¹⁾, 판소리 춘향가, 주영편(書永編, 1806),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849)

5) 조성운, 조선후기 서울 주민의 신분구조와 그 변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8, 1992

6) 김영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 268-299, 1999

7) 모리스 쿠랑, 金壽卿 譯, 朝鮮文化史序說, 凡章閣, 4, 1946

8) 李奎象, 18세기 조선 인물지(井世才彥錄), 민족문화사연구소, 145

9) 김영관, 앞의 책, 328

10)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上卷, 明文堂, 964-965, 1982

11) 朴義註解, 農家月令歌. 漢陽歌, 예그린출판사, 118-121, 1978

등과 외국인이나 선교사들이 쓴 기록에서 그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왕실과 지배계층은 흔들리는 왕권과 조선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신분의 위계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통치이념인 유교 사상을 더욱 강화하여 당시에 급성장한 일반 백성의 의식을 과거로 되돌리려고 했다.

4. 효제문자도의 형성과 발전

조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ideology) 보급수단의 하나로 형성된 효제문자도는 오늘날의 그래픽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면 대국민 캠페인을 위한 "홍보 포스터" 용도로 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효제문자도와 같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림이 제작된 경우는 중국 명나라 헌종(憲宗)이 왕실의 단결을 위해 특별히 신하에게 주었다는 일단화기(一團和氣)¹²⁾나 중국 왕실에서 유교의 윤리관을 보급하기 위해 민중이 선호하던 연화에 그 내용을 첨가해 배포한 교훈세화(敎訓歲畫)¹³⁾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조선후기에 성행하는 효제문자도 여덟 글자에 담겨 있는 내용은 조선이 통치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던 유교의 기본 교육서인 소학에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날마다 지난 일을 기록하여 지금과 옛 것을 구애치 아니 하되 반드시 효도(孝)와 공경(悌)과 충성(忠)과 신의(信)와 예문(禮)과 의리(義)와 청렴(廉)과 부끄러이 하는 일(恥)을 먼저 해야 하니 황향(黃香)이 베개에 부채질하는 것과 육적(陸績)이 꺾을 품는 것과 숙오(叔敖)의 숨은 덕과 자로(子路)가 쌀을 지는 것과 같은 것을 세속에서 말하듯이 한다면 곧 이 도리를 깨달을 것이니, 오래도록 기르고 익히면 덕성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밖에 인간의 신의와 유교의 5가지 덕목과 관련된 모범 사례들을 글과 그림으로 엮은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1797) 등도 유교사상의 보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하나로 들 수 있다.

4-1. 효제문자도의 정형 성립과 내용

하나의 정형이 성립되기 이전의 효제문자도는 그 형식에서 명말청초대(明末清初代: 1640년대 전후 50년)에 성행하던 수(壽)나 복문자도(福文字圖)와 외견상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그 내용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다.

중국의 수복문자도는 도교와 고대설화가 결합된 장면들을 자획 안에 배치하는데, 구름, 소나무, 사슴, 학, 선도복숭아, 절개의 삼우(三友: 매화, 대나무, 돌) 등을 배경으로 하고 서왕모(西王母), 복록수(福祿壽), 삼성(三星), 팔선(八仙), 유해회금섬(劉海戲金蟾), 기린송자(麒麟送子), 화합견희(和合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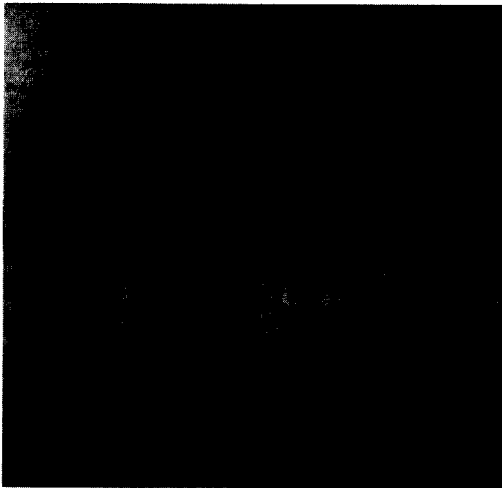
12) 중국 황실의 단결과 군신간의 화합을 강조한 길상화의 일종이다. 대표적으로 화합치상도(和合致祥圖)가 있으며, 일단화기(一團和氣) 또는 화기치상(和氣致祥), 화기길상(和氣吉祥) 등으로도 불린다.

13) 田所政江, 東아시아의 民間書 미술사논단 9, 시공사, 16, 1999

喜), 천관사복(天官賜福), 사복재신(賜福財神), 조공원사(趙公元師)와 같은 기복적인 고사인물도(故事人物圖)가 더해진다.

이와 유사한 양식이 수문자수침장(壽文字繡寢藏)과 허련(小癡 許鍊, 1808-1893)의 수자매수(壽字梅樹)와 같은 작품에서 보이기는 하나, 이들 작품에서는 수자를 나무나 꽃과 같은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있어 몽타주(Montage, 승성)나 하이브리드(Hybrid, 혼성)적인 중국의 양식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효제문자도의 내용과 형식은, 청초의 교훈연화인 효제개천성도(孝悌皆天性圖), 우제중천윤도(友弟重天倫圖), 무의지재군막치(無義之財君莫取)와 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판화로 된 효명전려향(孝名傳閭巷), 효의일문정도(孝義一門旌圖)와 한 벌로 생각되는 효제개천성도를 들 수 있는데, 효제개천성도의 오른쪽 위 연꽃에 “와빙구리(臥水求鯉)”라 쓰여 있고 그 밑 패옥형(佩玉形) 안에 진(晉)의 왕상(王祥)이 계모가 생선을 먹고 싶다하여 맨몸으로 얼어붙은 강 속에 들어가자 얼음이 녹고 잉어가 뛰어나와 계모인 어머니에게 드렸다는 고사가 그려져 있는데¹⁴⁾, 이는 효제문자도의 효자의 한 소재로 등장하는 왕상빙리(王祥冰鯉)와도 일치한다.



[그림-2] 지본채색 41×91cm 개인소장

여기서 효제문자도[그림-2]의 정형을 이루는 여덟 글자가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상징물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 孝: 중국의 효행고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왕상빙리(王祥冰鯉)의 잉어, 맹종설순(孟宗雪筍), 맹종읍죽(孟宗泣竹)의 죽순, 황향침선(黃香枕扇)의 부채와 베개, 대순탄금(大舜彈琴)의 거문고, 육적회굴(陸績懷橘)의 굴.
- 悌: 시경의 소아 상체편(小雅 常棣篇)에 형제간의 우애와 협동을 상징하는 할미새(鶺鴒) 한 쌍과 옥매화, 상체지화(常棣之華), 심락지정(湛樂之情)의 상체화.
- 忠: 中의 세로획을 감싸는 어변성룡(魚變成龍)의 도상이

14) 田所政江, 앞의 책, 15-16

나, 中의 세로획이 휘지 않고 부러지는 대나무와 정절을 뜻하는 새우의 등껍질을 그래픽적으로 강조.

●信: 요지춘궁(瑶池春宮)에서 서왕모가 온다는 소식을 전하는 청조(靑鳥), 상림(上林)에서 온 편지를 전하는 흰 기러기, 춘일도원 군신상서(春日挑園 君臣相誓)의 복숭아나무와 매화꽃.

●禮: 하도낙서(河圖洛書)를 등에 새기고 있는 신구(神龜), 팔괘, 태극, 기린, 소나무, 매화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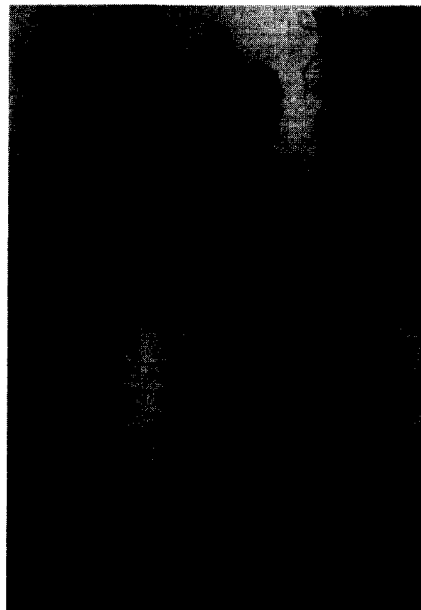
●義: 한 쌍의 정절 새, 도원결의(桃園結義)의 복숭아꽃, 임금의 궁전을 암시하는 성벽과 누각의 형상.

●廉: 봉비천인 기불탁숙(鳳飛千刀 飢不啄粟)의 봉황이나 출처지리(出處之理)의 게(蟹), 울리송국(栗里松菊)의 소나무와 국화, 세속과 철저히 단절된 은일과 청렴을 상징하는 나뭇배.

●恥: 수양매월 이제청절(首陽梅月 夷齊清節)의 매화, 달속 토끼들의 방아찝기 일화를 일러스트레이션한 월상도(月象圖), 백이숙제의 정절을 기리는 “百世(萬世)淸風夷齊之碑”의 명문을 써넣은 사당과 위패.

4.2. 효제문자도의 변천

효제문자도는 지배계층을 위한 감상용 그림이 아니라 실용화나 민중의 장식화로 제작되었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까닭에 작가나 제작연대의 기록을 남긴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로 그 이전 작품의 제작연대를 정확히 추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종이의 지질, 채색의 재료, 화풍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대체로 정형화 단계, 발전 단계, 지방양식 단계를 거쳐 변화되어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3] 지본채색 70.5×105cm 개인소장

정형화 단계는 18세기 전후로 여덟 문자의 자획을 그에 합당하는 유교의 교훈적 내용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꾸며 전체 자형을 새로운 이미지로 연출한 것으로 주로 도화서

화원들이 제작하였다. 이 시기에 왕실이나 지배계층의 취향에 맞춘 중국 원화풍의 효제문자도[그림-3]가 조선 고유 양식으로 정형화 된다.

이어서 발전 단계는 18세기 중엽이후로 정형을 갖춘 효제문자도가 신분상승을 꾀하던 일반 서민에게 큰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민중이 선호하던 상징적 요소나 표현들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시기로 그동안 급격히 침체되었던 지방양식이 본격적으로 재등장하는 때와 그 맥을 같이한다. 19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지방양식 단계는 지방양식이 전성기에 이르고 민간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효제문자도 또한 기본 형식이 해체되거나 민화의 다양한 양식과 조합하게 된다. 이제 초기의 유희적이고 교화적인 효제문자도 정형은 파괴되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정형의 효제문자도에서 다루던 상징물은 산수, 영모, 화조, 인물, 복극성, 연꽃, 구슬, 칠보, 단청, 팔괘, 태극, 책가도, 화병, 기명(器皿) 등등의 기복적이고 길상적인 소재들로 바뀌고, 여러 계층의 화공이나 화장의 화풍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효제문자도는 집안을 꾸미는 실용적 장식화나 마을잔치, 혼례나 제사와 같은 행사에 치레 병풍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효제문자도의 지방적 특성이 강하게 표출되는 시기도 바로 이때부터다.

5. 지역에 따른 표현 양식의 특징

조선시대 문화에서 지방양식이란 15세기 지배계층의 수요 증가로 발전한 특징적인 분청자기 양식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분청자기는 15세기 후반에는 경상도 분청, 전라도 분청, 충청도 분청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것이었다. 그 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치르면서 그동안 축적되었던 특색 있는 지방양식이 급속히 위축된다. 그러다가 18세기 이후 숙종대(肅宗代)에 이르러 목가구나 각종 생활용품, 다양한 민예품과 민화 등에 독창적인 지방양식이 재등장하기 시작한다.

그중에서 당시 민중의 예맥(藝脈)을 담고 있는 민화의 지방양식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진주지역에서 무명작가로 활동하던 신재현(申在鉉)이 우화적으로 그린 까치 호랑이 그림이나 제주도 산수화, 관동지역의 산수화와 장식화 정도에 그친다. 더욱이 효제문자도의 경우는 제주도(강원도¹⁵⁾의 두 지방양식 만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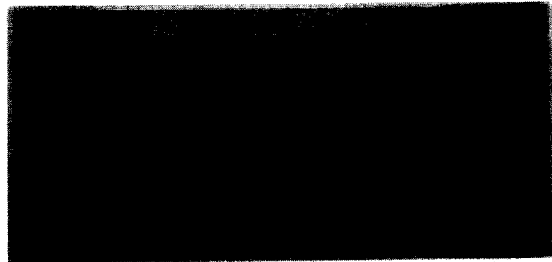
5-1. 정형의 경기도 효제문자도

경기도는 조선 문화의 정형을 이루는 지배계급과 경화세족의 거주지로 주변 지역의 문화를 흡수하고 전달하는 관문이다. 따라서 지배계급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 생겨난 효제문자도의 정형을 수도 한성을 포함한 경기도에 근간을 두는 것도 그 이유라 하겠다.

효제문자도의 정형을 보여주는 경기도 효제문자도는 전체

의 구성이나 배치에는 큰 변화 없이 20세기 초까지 지켜져 왔다. 다만, 그 형식에서는 다소 변화를 보여 여덟 폭 병풍의 뒷면을 꾸미기 위해 끝의 두 문자인 염자와 치자가 제외된 여섯 폭, 염자와 치자 대신 다른 형식의 민화(호렵도, 구운몽도, 화조도 ...)나 서예 작품으로 대체된 여덟 폭, 여덟 문자 이외에 다른 두 문자가 추가된 열 폭, 한 폭에 두 문자나 세 문자 그리고 다른 화제와 어울려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두 폭이나 네 폭의 가리개 병풍이나 여덟 폭이나 열 폭의 장식용 병풍으로 꾸며지는 다양한 형식이 등장한다.

표현 기법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로써 다양한 양식의 목판화[그림-4]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여덟 글자를 앞뒷면에 하나씩 새겨 네 개로 제작되었던 목판 원형을 살펴보면 경기도 효제문자도 정형의 도상과 완전히 일치된 형상을 이루고 있다.



[그림-4] 목판본 8폭 부분 42×72cm 개인소장

초기 판화의 경우 단순히 먹으로 인쇄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각 도상의 테두리만을 목판으로 인쇄하여 글자 내부는 먹으로 채우고 상징물의 내부는 당채로 채색한 효제문자도를 드물게나마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 발달한 채색판화기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¹⁶⁾ 이는 조선이 활자 인쇄술에 치중했던 탓도 있겠으나 중국보다 더 유교에 규범적이었던 사회 성격상 화려하고 상업성이 강한 채색판화기법을 기피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른 민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판화기법이 유독 효제문자도에만 쓰였던 사실은 효제문자도를 대량 생산하여 민중을 계몽하고 교훈적인 내용을 보급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 그밖에 팔각 필통의 각 면에 여덟 문자를 조각하여 당채로 채색한 문방용품과 주로 안동지역에서 생산되었던 지장(紙槓)과 자수(刺繡)의 효제문자도, 반질고리와 같은 규방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장식하는 문양으로도 정형의 경기도 효제문자도가 사용되었다.

5-2. 강원도 효제문자도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사면은 좁고 급한 반면 서쪽사면은 넓고 완만하여 중부지방의 동서 분수계(分水界)를 이루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의 중부에 위치하여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점이지대(漸移地帶)로 예로

15) 유홍준, 이태호, 문자도,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28, 1993

16) 이명구, 남인복, 한자문화권 문자도의 그래픽 콘텐츠 연구, 디자인학연구 제57호, 한국디자인학회, 216, 2004

부터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북방의 대륙문화와 남방의 해양문화가 유입되었을 것이나 북방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특징¹⁷⁾이 있다. 태조 4년(1395) '조선 8도제' 실시에 따라 큰 도시였던 강릉(江陵)의 '강(江)'과 원주(原州)의 '원(原)'을 따서 '강원도(江原道)¹⁸⁾'로 도명을 정하였다.

관동지방은 바다에 근접해 있는 강릉과 속초를 중심으로 안동문화권에 속함으로써 유교 사상이 강하게 배어있는 유교문화권의 중심지인 반면, 원주와 춘천을 중심으로 하는 관서지방은 폐쇄적인 산간지역을 이루고 있어 해안 쪽의 관동지방과는 자연환경과 문화형태에서 서로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대로부터 민간신앙이나 토속신앙으로 전해져온 무교에도 상반된 유형이 존립하는데, 경기 남쪽과 관동지방은 일정한 지역에서 대대로 곳을 해주는 세습무(世襲巫) 형태이며, 경기 한강이북과 관서지방은 스스로 신격화되어 신의 존재와 능력을 하늘로부터 내려받는 강신무(降神巫) 형태¹⁹⁾로 나타난다.

5-2-1. 관동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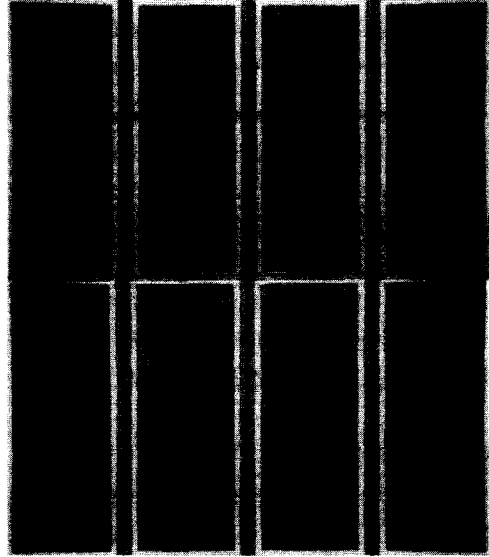
관동지방의 효제문자도는 정형의 경기도 효제문자도의 기본 도상을 유지하면서 그 형식과 구성 내용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관동의 경우 당시 산수화풍에서 유행하던 소상팔경도, 관동팔경도를 연상케하는 산수화 도상이 정형의 경기도 효제문자도 도상과 조합되어 한 화폭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한 화폭을 상중하 3단이나 상하 2단으로 나누어 별도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3단의 경우는 주로 [그림-5]와 같이 상단과 중단부에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산수화와 글씨로 처리된 화목(畫目)이 위치하고, 하단부에는 정형의 경기도 효제문자도가 배치된다. 2단은 책거리, 화조, 기명, 길상화와 같은 민화가 경기도 효제문자도와 함께 상하에 자유롭게 위치하는데 여덟 문자뿐만 아니라 수와 복자 또한 이와 같은 형식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병풍의 각 폭을 상중하로 나누어 영물(靈物)과 화조(花鳥)와 산수(山水) 등을 혼합되어 그려 넣고 있는 양식으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혼성된 형태로 그려진 관동 효제문자도는 정통 산수화에서 이상세계를 담아내는 표현방법과는 달리 원 안에 실경을 바탕으로 한 소나무, 폭포, 강, 정자, 절벽 등을 어촌 풍경과 함께 그려내 관동지방의 소박한 정서와 진솔한 소망을 북방의 선묘(線描)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관동지방의 특징적인 민화풍의 산수화나 화조도에서도 이러한 묘법(描法)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20세기 초 관동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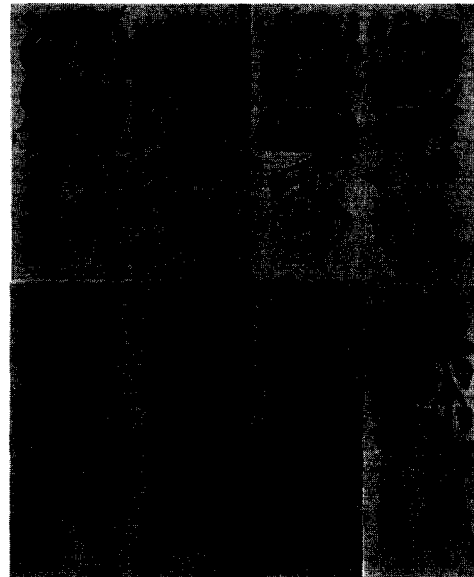
규²⁰⁾의 작품세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림-5] 지본채색 30.5×90cm 개인소장

5-2-2. 관서지방

관서지방은 무엇보다 높고 험준한 산악과 깊은 골짜기로 겹겹이 둘러싸여있는 지형적 영향으로 한국 무교에서 가장 신성시 여기는 산악숭배(山岳崇拜) 사상이 깊이 배어있는 지역이라 하겠다. 효제문자도에 나타나는 독특한 조형적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주술적인 상징성을 들 수 있다.



[그림-6] 지본채색 30.5×80cm 개인소장

[그림-6]에서 볼 수 있듯이, 얼핏 보면 부적을 그려놓은 듯한 형태로 경기도 효제문자도의 형식과 내용은 철저히

17)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도록, 10-11, 2002

18) 원주시립박물관, 원주시립박물관 도록, 60, 2003

19) 황루시, 한국인의 굿과 무당, 文晄社, 20-28, 1988

20) 黃聖圭(1886. 11. 5 - 1953. 5. 11); 아호는 石岡(崗), 황노인으로 더 유명했던 石岡은 平昌 月精寺에서 단청공사를 주관하였는데, 丹青工事に 대한 文籍문적을 보면 吾園 張承業과 圖書署 教授였던 醉翁 金命國도 같이 漢城 景福宮 丹青工事に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高度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배제되고 관서지방만의 특징적 양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전체 구성은 완전히 변형되어 무슨 자인지 알 듯 하면서 알 수 없는 초서체의 자획에 효제문자도 정형에서 다루는 주된 상징물이 주술적인 꽃이나 알 수 없는 장식물들과 혼합되어 나타난다. 경기도 효제문자도 정형의 형식과 내용이 해체되고 재조합되며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는 이러한 특징들은 정형을 유지하면서 민화의 다양한 장르들을 결합시킨 관동지방과는 전혀 색다르게 발달한 효제문자도 형식이다. 특히 자획에 나타나는 파괴되고 해체된 여덟 문자는 문자의 한계에서 해방되어 구성적 조형 형태와 추상적으로 암호화된 부적 형태를 표출한다. 이처럼 변형된 형태의 문자가 여덟 폭에 걸쳐 반복적으로 그려진 것은 무교의 부적 도상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의미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색채에서도 부적의 경우 단색조²¹⁾이듯이 효제문자도를 먹과 적색(赤色)으로만 처리하여 무교적인 색감이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관서지방의 독특한 양식이 장식적으로 꾸미기 위해서거나 주술적인 효과를 겨냥한 것이었거나 간에 무교적인 상징성을 강하게 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대다수 관서지방 효제문자도는 그림 병풍의 뒷면에 배접되었던 것으로 보아 그 같은 형식의 효제문자도가 오래 전부터 제작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5-3. 제주도 효제문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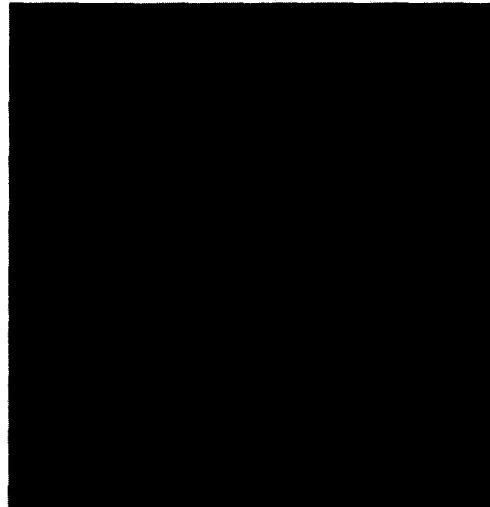
조선 8도에 포함되지 못하고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대정현(大靜縣)으로 구분되어 통치되었던 제주에 관한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된 중국의 삼국지위지동위전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그리고 탐라의 개벽신화를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영주지(瀛洲誌, 1416), 탐라지(耽羅志, 1653), 유배생활을 남긴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1520-11521),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1628-1635)²²⁾, 속음정사(續陰晴史, 1897-1901), 일기체 한문 기행수필인 남명소승(南溟小乘, 1577. 11-1578. 2), 남차록(1601. 8-1602. 2)²³⁾, 하멜보고서(1653-1666) 등이 있다.

조선 중엽 제주도에 표류한 하멜의 보고서에 따르면 “섬은 무수한 보이는 절벽과 안 보이는 절벽들, 암초들로 둘러싸여있고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곡물이 풍부하였으며, 말과 소가 많았다. 그 중 많은 양이 매년 왕에게 공물로 바쳐졌다. 주민들은 본토 사람들에게 천대받았으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다”²⁴⁾라고 당시의 제주도를 소개하고 있다.

제주도 효제문자도에는, 제주도 산수화에서 흥미로운 화풍으로 나타나는 남방의 묵법기법보다는 남방지역에서 발

달한 남방특유의 섬세한 선묘(線描)기법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 중부와 남부의 여러 민족 사이에서 오늘날까지도 행해지고 있고, 일본의 오키나와(沖繩) 본도(本島) 지역과 캄보디아, 베트남, 대만 일대의 남방문화권(南方文化圈)²⁵⁾의 영향을 받아 토착화된 민간신앙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우선 남방문화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용배(龍船)짓기²⁶⁾와 그 지역에서 행해지는 민속행사들과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우리나라 남해안의 몇몇 민속행사와 제주도 칠머리 당굿과 영등굿²⁷⁾ 등에서도 연관성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남방 특유의 배석신앙(拜石信仰)에서 생겨난 남방문화권의 돌장승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제주도 돌장승²⁸⁾에서도 남방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다. 실제로 17세기 이전에 제주도 사람들이 베트남에 표류하여 중국 상인들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베트남 상인들은 제주도와 무역을 하기도 했다.²⁹⁾ 이 같은 신라 때의 기록을 통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남방문화권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림-기] 기본채색 42×85.5cm 개인소장

다음으로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 민화에서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나는 비백효과가 있다. 제주도 효제문자도에서 비백효과는 주로 여덟 문자 내부를 꾸미는 파문(波紋)에 쓰인다. 비백효과에 쓰이는 띠(茅)는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가옥의 지붕을 이거나 각종 생활용품 등에 사용하는 다년생 초본식물³⁰⁾로, 제주에서는 ‘새띠’나 ‘띠풀’로 불린다. 이 띠를 쪼개 넓게 편 다음 붓 대용품으로 하여 비백

25) 김정업, 해도부락제의 신출현 형식고, 한국민속학-8, 14, 1975

26) 김광언, 용배 짓기 考, 문화재 27, 101-125, 1994

27) 德丸亞木, 한일어민신앙의 비교연구-제주도 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34, 293, 2001

28) 최준식,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효형출판사, 207, 2000

29) 조홍규, 한국과 동남아의 문화적 교류,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소나무, 241-276, 1999

30) 인병선, 풀문화, 대원사, 36, 1991

21) 金玟其, 앞의 책, 38

22) 尹致富, 林白湖의 南溟小乘 攷 第 7 輯, 耽羅文化, 85-86, 1988

23) 제9회 기획전 인쇄문화의 발자취를 찾아서, 제주문화박물관, 39-57, 2003

24) Hendrik Hamel, 하멜 보고서, 유동익, 중앙M&B, 35,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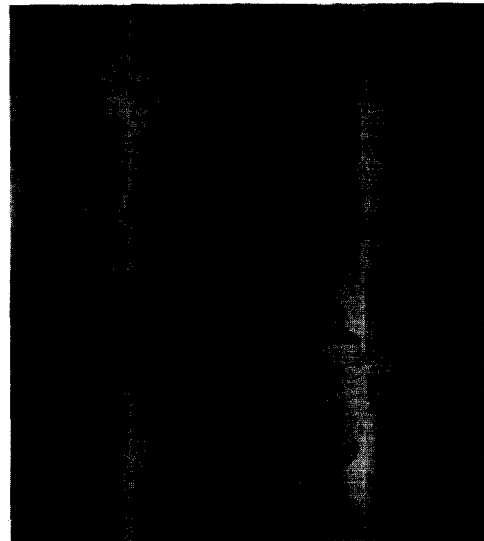
기법을 구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표현기법뿐만 아니라 [그림-7]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도 효제문자도는 다른 지방의 그것과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그 특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독창적인 문자의 조형성으로, 글자의 자획을 유교의 교훈적 상징물들로 꾸미는 내륙의 효제문자도 양식과 달리 문자의 외곽선을 굵게 강조하고 자획 끝부분을 단청문양(丹青文樣)으로 장식하면서 그 내부를 단순히 비백의 파문으로 채운다. 특히 세 번째 폭에 해당하는 충자는 마음 심(心) 변을 물고기 모양으로 형상화하는 특징이 있다. 둘째로 전체 레이아웃으로, 문자를 중심으로 특징적 상징물이 상단과 하단에 배치된 3단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부분을 역설적으로 설명한다면 상단은 사후에 해양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믿는 해양타계관(海洋他界觀)³¹⁾과 남방의 해인족(海人族) 문화³²⁾나 해신제(海神祭)³³⁾와 연관성이 있다. 가운데 부분은 현재 인간이 행해야만 하는 유교의 여덟 덕목인 효제문자도의 여덟 문자, 하단은 제주도민들의 삶의 방편인 어촌 생활과 관련된 가족의 안녕이나 풍어와 같은 소망과 꿈을 나타냄으로써 지역의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긍정적인 제주도민의 삶을 표현한 것들이라 하겠다. 셋째로 제주도 효제문자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상징물들로, 내륙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효제문자도에서 주로 다루는 부채.거문고.죽순.용.새우.청조.신구.봉황.매화.월병도 등이 제주도 효제문자도에서는 2층 기와집 양식이나 신목(神木).제주해안선을 따라 서식하고 있는 동백나무와 왕후박나무.제주도에서만 자라는 파초일엽(芭蕉一葉)과 해안상록활엽수(海岸常綠闊葉樹).습새와 같은 바닷새.물고기 등이 지진, 번개, 전기에 강력한 쇼크를 받은 듯한 표현으로 매우 해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두세 폭에 걸쳐 등장하는 2층 기와집 양식은 지리적 배경에 기초해 용궁도(龍宮圖)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육지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기원하는 관청(官廳), 풍어나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당도(祠堂圖), 제사와 관련된 상징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조상에게 감사를 드리고 집안의 번창을 기원하며 제사를 모실 때 사용하는 감모여재도(感慕如在圖)로도 해석할 수 있다. 넷째로는 화폭의 크기로, 바람이 많고 거세 나지막하게 지은 제주도의 가옥규모에 비해 그 화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병풍을 꾸미는 것의 차이점으로 내륙의 병풍은 주로 상단과 하단에 별도의 공간을 두고 꾸며졌으나 제주도에서는 전체가 하나의 화폭으로 이루어진 병풍이 제작되었다. 그리고 시대가 내려올수록 화폭이 좁고 긴 것들이 보이는데 이는 내륙의 영향이 제주도에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가구 숫자에 비해 상당 양이 남아 전해지는데, 이는 부모와 결

혼한 자식이 한 집에 살게 될 경우에도 각자 별도의 살림을 꾸리는 전통 풍습에 따라 가구 수에 비해 많은 민예품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한편 효제문자도 이외의 길상문자도에 있어서도 내륙 지역이 기복적이고 벽사적인 문자도가 성행했던 것과 달리 제주도에서는 유교의 덕목을 유난히 강조한 문자도가 더러 나타나는 것은 김정희와 같은 명망이 있는 유학자들이 남긴 유배문화의 흔적이 아닌가 싶다. 일제 강점기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효제문자도[그림-8]에는 상단부에 일본 특유의 도상과 함께 꽃무늬를 인화문으로 처리한 특징과 하단부에 사나운 이빨을 드러낸 무서운 물고기 형상을 묘사한 작품도 있으나 정형의 제주도 효제문자도와는 확연히 다른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튼 제주도의 효제문자도가 많은 외국인으로부터 관심을 끌면서 영국 '대영박물관'이나 프랑스 '기메(Guimet)박물관' 등 세계 유명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것 또한 효제문자도 중에서 가장 뚜렷한 지방적 양식과 독창적인 조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8] 기본채색 36.5×80cm 개인소장

5-4. 남도 효제문자도

여기서 남도(南道)는 전라도와 경상도 남서부 및 충청도 일부 지역을 말하며, 개념은 조선중기 이후 중부 이남에서 발달하여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판소리와 민요의 지역적 카테고리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남도지방은 2천리 해안선을 따라 2천여 개의 섬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다도해 지역으로 화조, 산수 등의 민화가 성행한 지역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도 제주도의 주된 이동경로로 이용되었던 까닭에 제주도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생활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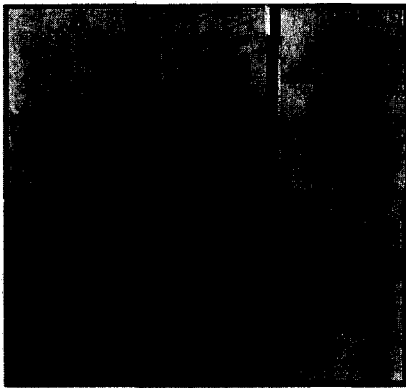
이러한 영향은 18세기 이후 등장하는 장승문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북방의 영향을 받은 경기도와 중부내륙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나무장승과 달리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도 내륙지역과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돌장승은 두 지역간의 문화적 연관성과 남방문화의

31)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491,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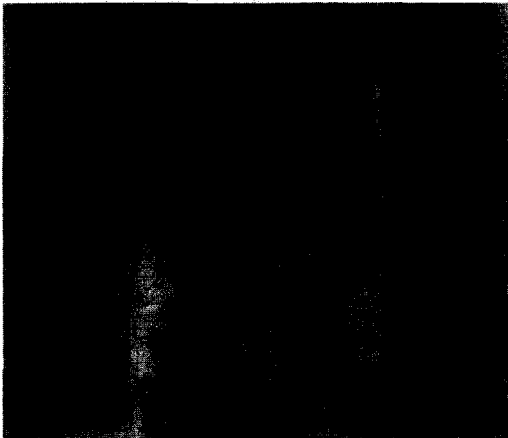
32) 현용준, 고대한민족의 해양타계, 한국문화인류학-5, 66, 1972

33) 김정업, 앞의 책, 14

자취를 발견하게 해 준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마을곳의 하나인 전라북도 부안군의 위도띠배곳과 경남 양산 통도사 극락전에 그려진 험한 바다를 건너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반야용선(般若龍船) 벽화를 통해서도 남방계 열의 해양타계관과 해신제와 같은 풍습을 엿볼 수 있다. 효제문자도 중에서 가장 장식성이 강하고 해학이 넘치는 남도 효제문자도는 정형의 경기도 효제문자도를 따르면서도 그 지역의 고유한 정감과 뚜렷한 장식성으로 효제문자도를 꾸미고 있어 강한 특징을 드러낸다. 이러한 특징을 크게 분류하면 [그림-9]와 같이 문자 전체의 형태를 기암 괴석이나 고산(故山)을 상징적으로 과장되게 변형시켜 전체의 조형미를 한층 신비스럽게 연출한다. 문자의 내부는 남도풍 화조도나 산수화를 옮겨 놓은 듯한 상징적 요소들과 다수의 물고기, 꽃, 새, 정자, 계곡 등이 두세 폭에 걸쳐 장식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림-9] 지본채색 6폭 28x40cm 개인소장



[그림-10] 지본채색 8폭 35x55cm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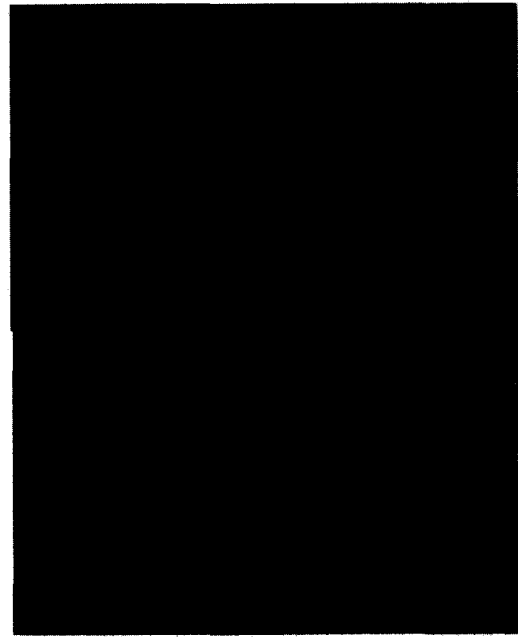
제주도 효제문자도와 마찬가지로 남도 효제문자도의 여러 폭에 등장하는 물고기는 효제문자도 정형에서 다루는 효나 충의 상징적 의미와는 다르게, 재액예방, 풍어, 집안의 안녕 등을 기원하는 남도민(南道民) 고유의 정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남도 효제문자도가 남방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제주도 효제문자도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기도 한다. 두번째 형식으로는 [그림-10]과 같이 정형의 양식을 따르

고 있으나, 내용에서는 정형의 효제문자도가 다루는 상징적인 요소들을 해학스럽고 자유분방한 남도풍의 민화형식으로 재해석하여 남도 지방 특유의 정감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림-11]에서는 남방문화의 특색이 가미된 극세화(極細畵) 형식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지방적 조형특성 외에도 정형의 효제문자도에 근간을 두고 화장의 독특한 화풍으로 그려낸 매우 다양한 형식이 보이는데 이들은 아쉽게도 특정 지역을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한 대표적 작품으로는 [그림-12], [그림-13], [그림-14]와 일본 가부키문자(歌舞伎文字)를 연상케 하는 [그림-15] 등 매우 다양한 형식이 보인다.

그밖에 당시 지배계층들의 서풍(書風)에서 유행하던 촉체(蜀體, 元代 趙孟非真體), 액체(額體, 元代 雷菴體)와 비백서(飛白書)를 소개한 류득공(柳得恭, 1749-1807)의 경도잡지에서 그 연원을 알 수 있는 효제문자도 혁화(34)를 꼽을 수 있다. 비백효과가 강조된 효제문자도 혁화는 화려하고 정연하게 제작된 정형의 효제문자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그려졌다. 대부분 종이에 먹으로 담백하고 소박하게 그린 것들로, 효제문자도의 정형을 그대로 혁화로 묘사한 효제문자도 혁화[그림-16], 여덟 문자를 간결하고 담백하게 쓴 효제문자도 혁화[그림-17], 대나무를 주 테마로 해 효제문자도의 상징적 요소들을 꾸민 효제문자도 혁화[그림-18]가 있다.

아울러 신(信)자를 그래픽적으로 디자인한 [그림-19]와 수복자의 길상문자도[그림-20] 그리고 20세기 전후에는 일본의 도안적(圖案的) 요소가 효제문자도에 적용된 작품[그림-21]도 종종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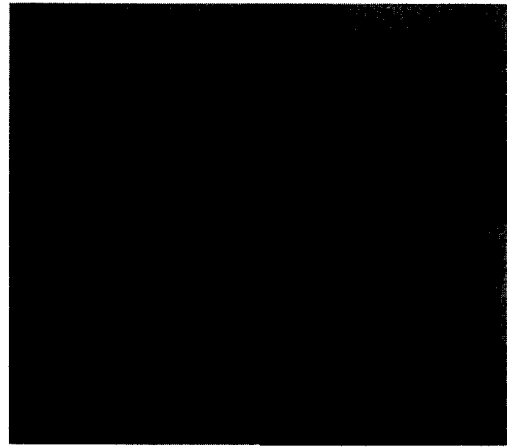


[그림-11] 지본채색 34x84cm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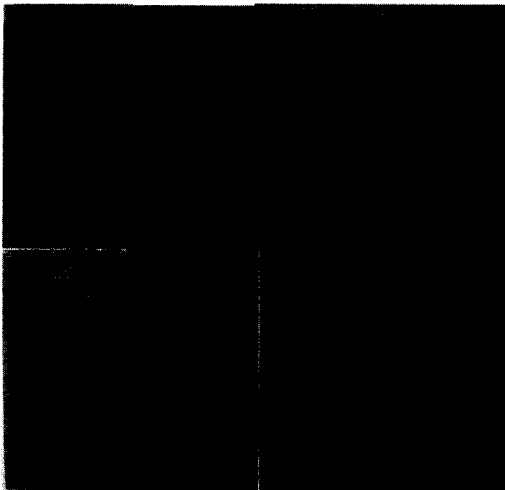
34) 이명구, 남인복, 조선 후기 혁화의 그래픽 콘텐츠 연구, 디자인학 연구 제54호, 한국디자인학회, 41-42,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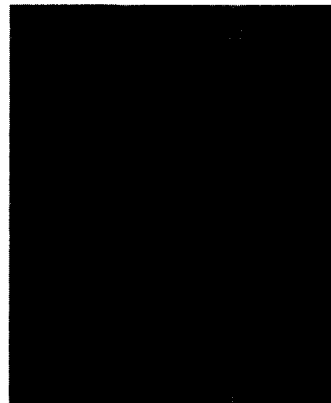
[그림-12] 지본채색 32.5×75cm 개인소장



[그림-16] 지본수묵 28×35cm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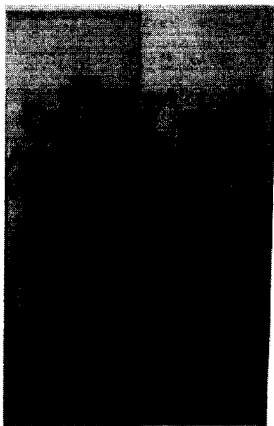
[그림-14] 지본채색 32×60cm 개인소장



[그림-17] 지본수묵
39.5×74cm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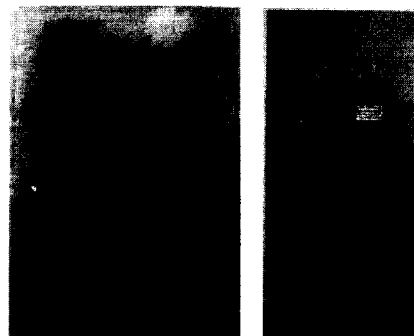
[그림-18] 지본수묵
37×80cm 개인소장



[그림-13] 지본채색 8쪽
부분 29×90cm 개인소장



[그림-15] 지본채색
31×89cm 개인소장



[그림-19] 지본채색
37×53cm 개인소장

[그림-21]
지본채색
40.5×85.5cm
개인소장



[그림-20] 수복문자도 지본채색 31×57cm 개인소장

6. 결론

이제껏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민화는 18, 19세기에 전성기를 누리며 다양하고 독특한 지방 조형양식으로 발전해왔다. 아울러 그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민중 예술운동이 전개되었던 때와 같이 한다. 따라서 조선 민화의 발전은 서구에서 산업혁명의 성공과 함께 꽃핀 민중 예술운동과 무관하지 않고, 세계의 미술사나 회화사 그리고 디자인사를 통해 평가와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는 아방가르드나 팝 아트와 같이 구조적 사조라기보다는 과도기적 사조에서 탄생된 민중예술(Popular Art)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불교의 관점에 치우쳐서 우리의 조형미를 평가한 경향에서 벗어나, 당시 민중예술에 근간을 둔 진정한 한국 디자인의 모태로서의 정체성을 찾음으로써 현대적 그래픽디자인에서 놓치고 있는 생명력과 상징성에 대한 연관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효제 문자도의 다양한 지방적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타이포그래피적이고 일러스트레이션적인 조차력과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크리에이티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그리하여 보다 차별화된 우리 고유의 디자인 세계를 형성하고, 지역 고유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효제문자도에 대한 연구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던 1950년대 경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가 조선시대의 효제 문자도를 일본 에도시대의 경우에 비추어 글을 모르던 무사(武士)들이나 민중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소형의 그림책이나 낱장의 그림을 일컫는 문자회와 같은 기능의 것으로 취급한 영향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조차 효제문자도를 다루는 여러 전문서적에 문맹인을 가르치기 위한 그림이나 어린이의 공부방을 꾸미는 병풍쯤으로 여겨온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효제문자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 잡았으면 한다.

참고문헌

- 아시아公論, 李朝의民畫, 아시아公論社, 1978年 3月 號
- 生活畫としての李朝의民畫, '李朝民畫展'パンフレットより, 於新宿泊小田急百貨店, 1979

- 藝術新潮, 李朝民畫を 見直す, 新潮社, 1980年 1月號
- 伊丹潤編, 民畫れついで, 李朝民畫, 講談社, 1975
- 李朝の美, 李朝民畫の心, 毎日新聞社, 1973
- 伊丹潤編, 構造としての繪畫, 李朝民畫, 講談社, 1975
- 金鎬然, 韓國의 민화, 庚美文化社, 1977,
- 中國現代年畫事情, 東京文化短期大學紀要 第4號, 東京文化短期大學, 1981
- collection Lee U-fan, Nostalgies Coreennes, musee Guimet, 2001
- 志和池昭一郎. 龜倉雄策. 趙子庸. 李禹煥 外, 朝鮮의 民話 上. 下卷, 講談社, 1986
- 中村久四郎, 近世支那の日本文化に及ぼしたる影響 第二回, 史學雜誌 第25卷 第3号, 1914
- 柳宗悅, 朝鮮の民畫, 民藝, 日本民藝協會, 1959
- 柳宗悅, , 이길진, 조선과 그 예술, 신구문화사, 1994
- 金哲淳, 韓國民畫論考, 藝耕産業社, 1991
- 金玟其, 韓國의 符作, 보림사, 1987
- 朴容淑, 圓像으로서의 무속화와 그 繪畫性, "한국巫神圖", 悅話堂, 1989
- 姜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 1999
- 모리스 쿠랑, 金壽卿, 朝鮮文化史序說, 凡章閣, 1946
- 申光洙, 崔北雪江圖歌, 崇文聯芳集, 탐구당, 1975
- 李奎象, 18세기 조선 인물지(井世才彦錄), 민족문화사연구소
- 李圭景, 五州衍文長箋散稿 上卷, 明文堂, 1982
- 朴晟義註解, 農家月令歌. 漢陽歌, 예그린출판사, 1978
- 남경, 소주도화오목판연화, 강소고적출판사, 1991
- 田所政江, 東아시아의 民間畫 미술사논단 9, 시공사, 1999
- 유홍준. 이태호, 문자도,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93
- 황루시, 한국인의 굿과 무당, 文音社, 1988
- 庾容泰, 강원의 美 제1집, 강원일보사, 1993
- 尹致富, 林白湖의 南溟小乘 攷 第 7 輯, 耽羅文化, 1988
- Hendrik Hamel, 유동의, 하멜 보고서, 중앙M&B, 2003
- 최준식,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효형출판사, 2000
- 조홍국, 한국과 동남아의 문화적 교류,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소나무, 1999
- 인병선, 풀문화, 대원사, 1991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현용준, 고대한민족의 해양타계, 한국문화인류학-5, 1972
- 이명구. 남인복, 조선후기 혁화의 그래픽 콘텐츠 연구, 디자인연구 제54호, 한국디자인학회, 2003
- 이명구. 남인복, 한자문화권 문자도의 그래픽 콘텐츠 연구, 디자인연구 제57호, 한국디자인학회, 2004
- 조성운, 조선후기 서울 주민의 신분구조와 그 변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정업, 해도부락제의 신출현 형식고, 한국민속학-8, 1975
- 김광언, 용배 짓기 考, 문화재 27, 1994
- 徳丸亞木, 한일어민신앙의 비교연구-제주도 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34, 2001
-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도록, 2002
- 원주시립박물관, 원주시립박물관 도록, 2003
- 제9회 기획전 인쇄문화의 발자취를 찾아서, 제주문화박물관, 2003